엄마, 아빠의 말 못하는 영어

자녀에게 대물림 하지 말자!

100년 전 대한민국에 영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소리를 담을 녹음기도 없었고,

주변에 소리를 들려줄 원어민 교사도 없었고,

오직 책만으로 공부해야 했던 시절

지금은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IT 기술과의 접목으로

미국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듣고, 말하는 영어 학습이 가능한 시대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어공부는

아직도 책으로 하는 영어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

알아듣지 못하고,

몸이, 입이, 혀가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말도 못한다

IT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영어는 시험을 위한 공부만이 아닌

자녀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언어이다

영어의 길이 보인다

모국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

영어는 어떻게 뇌 속에 기억되는지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알면

영어의 길이 보인다

뇌 속에 기억되는 단어의 모습

현재 제작된 것 사용

글자단어가 추가된 것처럼 영어 소리도

어렵지 않게 모국어 단어네트워크에 추가되어 듣고, 말하게 된다

소리로 듣고 말하기는

수다에서 시작된다

특허 제 10-

특허 제 외국어 말하기 평가

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듣기와 말하기

* **눈으로 듣는 대한민국의 듣기**

학년이 올라가면 처음 듣는 단어들과 점점 길어지는 문장들

문장을 보지 않고서는 들리지 않는다. 문장을 보고 듣는다.

문장을 보고 듣는 순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이 된다.

듣기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10년 이상 영어 공부해도 듣지 못해 말 못하는 영어가 되는 것이다.

* **몇 번 들어야 뇌 속에 기억될까?**

몇 번 들어본 문장은 타고난 인간의 언어 능력으로 순간적 듣고 따라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기억된 문장은 다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집중하여 듣기가 어렵다. 몇 번 듣고 영어 소리가 뇌 속에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 **영어 말하기 평가는 누가 하나?**

말하기는 입과 혀로 소리를 내는 운동이다. 자연스럽게 영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영어로 입과 혀의 부단한 운동 연습이 필요한데, 누가 말을 들어주는 상대, 평가해 줄 상대가 없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떠난다…….